

##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란과 논쟁을 번역하다\*

이 형 진  
(숙명여대)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2010년대 전후의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논쟁 속에 내재된 공통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 같은 논란과 논쟁의 근간을 이루는 번역의 역학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대 전후 한국문학의 영어번역과 관련해서 연구논문과 같은 학술적 장에서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영어번역의 오류나 적절성, 번역가 자격 논쟁이 뜨거웠던 경우들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처럼 반복되는 논쟁 패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0년대 전후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란으로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2008)를 번역가 김지영(Chi-young Kim)이 영어로 옮긴

*Please Look After Mom* (2011)과,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를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영어로 번역한 *The Vegetarian* (2015)을 들 수 있다.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경우, 2011년 4월 미국 크노프(Knopf)출판사에서 출간된 직후 온라인 도서판매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의 ‘베스트 10’에 진입하고,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가 발행하는 잡지 「O Magazine」의 ‘꼭 읽어야 하는 4월의 책’에도 선정되는 등, 그 당시까지 영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 작품 중에서 미국 독자들로부터 가장 크고 많은 관심을 받는 작품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2015년 1월 영국 포트벨로(Portobello) 출판사에서 나온 한강의 *The Vegetarian*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뉴욕타임즈」 ‘베스트 10’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작가와 작품으로는 최초로, 2016년 5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손꼽히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동안의 여전히 한국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던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 두 번역본의 성과는 가히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나 이 두 번역본의 눈부신 해외 출판계 성과와 호평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영어번역본 *Please Look After Mom* (2011)과 *The Vegetarian* (2015)은 국내 학계와 언론에서 근래들어 가장 뜨거운 오역 논란과 번역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논란과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두 영어번역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략이나 변형에 관한 번역 ‘적절성’ 논쟁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역과 관련된 번역가 ‘자격성’ 논란인데, 본 연구는 두 번역 텍스트에 대한 논란과 논쟁의 원인이 되는 비평의 근본적인 헤게모니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7년도 12월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2.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대한 논쟁과 논란

### 2.1 연구대상으로서의 번역서 선정의 논란

문학번역, 특히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관련된 논쟁이나 논란은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지 논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논쟁이나 논란은 학문적 담론의 장 안에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그 중에서 일반 대중의 관심까지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한해서 문학번역에 관한 논쟁은 학문적 담론의 장을 넘어 하나의 사회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 같은 대중적 논쟁의 발현은 대부분 학자나 출판사 관계자들의 신문이나 잡지의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문학의 모든 영어번역서가 문학번역 연구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의 학문적, 대중적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경우, 2011년 출판된 후 미국 출판시장과 대중매체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 같은 열기가 국내 학계와 대중매체로 넘어오면서 번역가 김지영에 대한 관심과 찬사, 그리고 번역가와와의 다양한 인터뷰로도 이어졌다. 특히 *Please Look After Mom*을 출판한 미국의 크노프(Knopf)출판사의 로빈 데서(Robin Desser) 편집장과 번역가 김지영의 협업 방식은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이상적인 모델로도 소개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형진 2011: 308-9). 여기에 더해 2012년 3월, ‘맨부커상’을 후원하는 ‘맨그룹’이 아시아 작가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맨아시아문학상’(Man Asian Literary Award)의 수상작품으로 *Please Look After Mom*이 선정된 사실도 작품에 대한 대중적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을 실어주었다. 이 같은 사회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뜨거운 학술적 관심으로도 이어져, *Please Look After Mom*이 출판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번역을 주제로 하는 국내 학술논문만 20편 가까이 발표되었다.

〈표 1〉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번역에 관한 국내 논문 (2011-17)

연도	논문
2011	-이형진 (2011) 「신경숙의 <i>Please Look After Mom</i> 」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학비교연구』37: 303-328. -Woo, Jung Min (2011) ‘ <i>Please Look After Mom</i> , by Kyung-sook Shin’, <i>Asian Women</i> 27(4): 119-123.
2012	-정호정 (2012)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14(2): 255-281. -전승희 (2012) 한국문학을 ‘부탁해’?: 신경숙 저. 『엄마를 부탁해』(창비, 2008.11)의 미국시장에서의 성공, 『플랫폼』(인천문화재단) 34: 64-67. -음영철 (2012) 「한국 소설의 한류 가능성 모색: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9: 93-116. -Lee, Peter (2012) ‘The Case for a Narrative Filter in Juliane House’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odel: Focusing on Shin Kyung-Sook’s <i>Please Look After Mom</i> ’, 『통번역학연구』 16(1): 205-240. -Kim, Georges Jiho (2012) ‘Translation as Communication: Communicative Teaching of Translation Using Published Translation: <i>Please Look After Mom</i> ’, 『통번역교육연구』 10(2): 5-26. -김영신 (2012) 번역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사의 비가시성 연구--『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14(2): 63-78.
2013	-Yoon, Sun-kyong (2013) ‘Popularizing Shin Kyung-sook in English: <i>Please Look After Mom</i> ’, 『세계문학비교연구』 42: 579-594. -성초림 (2013) 문학번역 평가의 시대, 무엇이 좋은 번역인가, 『세계문학비교연구』42: 173-192. -최성실 (2013) 「세계속의 한국문학: 내러티브 인지와 공감의 글쓰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9: 379-406. -윤선경 (2013) 「문학번역 연구 현황과 과제: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57(3): 125-145.
2014	-박철우 (2014) 「신경숙의 <i>Please Look After Mom</i> 에 나타난 ‘자국화’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 13(2): 181-197. -Yun, Hunam (2014) ‘The Ambilaterality of Fluency in Translating Literature in Peripheral Contexts’, 『번역학연구』 15(4): 287-321. -윤후남 (2014) Translation of Theme in Fiction with the Case of <i>Please Look After Mom</i> , 『통번역교육연구』 12(2): 229-244.
2015	-정경숙 (2015) 「한국어 시제형태 ‘-었-’에 대한 소고: 소설 『엄마를 부탁해』와 영역본 비교에서」, 『언어과학연구』 73: 155-178. -조숙희 (2015) 베누티의 이국화로 본 김지영의 번역 텍스트 <i>Please Look After Mom</i> : 문화특정어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8(3): 253-271.
2016	-윤정화 (2016) 「경계에 서기. 세계문학이 되기 위한 서사와 번역의 전략: 『엄마를 부탁해』의 작가 신경숙과 번역가 김지영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4): 115-142.
2017	발표논문 없음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을 통해 한국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준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의 경우에는,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을 통해 2015년 1월 영국 포트벨로(Portobello) 출판사에서 처음 출판되고 2016년 5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이후로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The Vegetarian* 영어번역에 관해 16편 넘는 국내 학술논문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표 2〉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영어번역에 관한 국내 논문 (2015-17)

연도	논문
2015	발표논문 없음
2016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이지민 (2016)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에 나타난 번역자 전략 연구—이중시점과 내포작가를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18(5): 137-162. -노대원 (2016)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세계라는 타자와의 대화를 위하여」, 『우리말글』 71: 411-434. -이강선 (2016) 「고백록에서 저택록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57: 271-312. -김대중 (2016)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1: 31-59. -김가희 (2016)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 <i>The Vegetarian</i> 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9(3): 29-44. -이형진 (2016)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한국문학의 문화번역 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3): 139-164.
2017	-구상분 (2017)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의 문학번역품질평가 이론에 기반한 번역텍스트 분석 및 평가: <i>The Vegetarian</i> 의 경우, 『번역학연구』 18(3): 37-64. -노은주 (2017) 「문학 작품 ‘멀리서 읽기’: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본 텍스트 분석」, 『언어와 언어학』 74: 75-104.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173-205. -안미영 (2017) <i>The Vegetarian</i> 번역전략 분석: 언어 및 문화 차이를 중심으로,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27-42. -신혜정 (2017) 「데버러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번역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657-666. -김변 (2017) 「『채식주의자』와 <i>The Vegetarian</i> : 원작과 번역의 경계」, 『영미문학연구』 32: 5-34. -마승혜 (2017) 독자 수요성 제고를 위한 번역 비가시성 요소 분석 및

의: 『채식주의자』와 영역본 *The Vegetarian*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01-135.  
 -원종화 (2017) 「독자 반응을 통한 한·영간 색채의식 차이 연구—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그 영역본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5): 111-141.  
 -최진실 (2017) 「번역교육에서 동료평가의 내용: 『채식주의자』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5(3): 211-233.

더욱이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가 2017년 9월 이탈리아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말라파르테상’(Malaparte Prize)을 수상한 이후로, 작가 한강은 그 이후 계속해서 세계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작품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학술연구의 대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1970년생으로 국내 문단에서는 아직 40대 작가라는 제한적 위상에 머무는 한강의 이 같은 눈부신 세계문학계 활동과 명성이 한국문학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서 *Please Look After Mom*와 *The Vegetarian*에 대한 전례없이 뜨거운 국내 학계의 학문적 관심과 언론의 열풍은 또 다른 측면에서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김영하(1968~)의 대표작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영어번역을 미국 대표출판사 중 하나인 하코트(Harcourt) 출판사에서 2007년 7월 출판한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 (2007)와, 블룸스베리(Bloomsbury) 출판사에서 출판된 조경란(1969~)의 『혀』의 영어번역 *Tongue: A novel* (2009), 펭귄(Penguin Books)출판사에서 나온 황선미(1963~)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영어번역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2013), 그리고 영국의 대형출판사 팬맥밀란(Pan Macmillan) 출판사에서 출판된 후 2017년 이탈리아의 우수 문학상인 ‘프리미오 셀레지오네 반카렐라’(Premio Selezione Bancarella)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정명(1965~)의 『별을 스치는 바람』의 영어번역 *The Investigation* (2015), 최근에 페가수스(Pegasus Books) 출판사에서 나온 이정명의 『천국의 소년』의 영어번역 *The Boy Who Escaped Paradise: A Novel* (2016), 그리고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운영하는 오픈 레터스(Open Letters) 출판사에서 나온 배수아(1965~)의 『서울의 낮은 언덕들』의 영어번역 *A Greater Music* (2016) 등은 아래의 세 가지 흥미롭고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영어번

역과 관련된 논쟁과 논란의 본질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여섯 편의 영어번역서는 모두 영미권의 대표적인 문학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과, 둘째, 마지막 배수아 소설을 제외한 앞의 다섯 편의 번역서는 모두 *Please Look After Mom*의 번역가인 김지영이 번역했으며, 마지막의 배수아 소설의 번역가는 *The Vegetarian*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실이다. 한국문학 영어번역에 있어서 번역가 역량의 중요성과 해외 우수출판사 출판 섭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해외 우수출판사를 통한 출판되고 이미 검증된 번역가 김지영과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에 참여했다는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도 이들 여섯 편의 번역서는 원본의 완성도나 번역의 수준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실 *Please Look After Mom*과 *The Vegetarian*도 작품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번역출판을 위한 이 두 가지 필수조건을 갖추어서 성공적으로 해외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여섯 편의 한국문학 영어번역본 모두 문학번역의 연구대상으로 손색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 공통점으로, 영어번역서가 출판되고 나서 각각 20편 가까이 국내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던 *Please Look After Mom*나 *The Vegetarian*의 영어번역과는 달리, 이들 여섯 편의 영어번역서 중에서 그 어느 번역도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한 편의 연구논문도 없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상징적이다.

이처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대한 학술연구의 분석 대상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과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서가 학술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Please Look After Mom*과 *The Vegetarian*처럼 국내보다 국외에서 원본보다 더 큰 대중적 관심과 영향력, 위상을 획득한 번역서라는 점에서 번역 논란의 본질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논란이 번역서의 영향력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원본과 번역본은 상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관계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번역가 김지영의 다섯 편의 번역서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서 중 그 어떤 번역서에 대해서도 아직 국내에서 학술적 논의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여섯 편의 번역서의 번역 수준이나 완성도 문제가 아니라, 번역이 가지는 영

향력이나 가시성의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여섯 편의 번역서가 출판시장이거나 일반 독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가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번역서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국내에서의 원본의 위상이나 헤게모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미미했다고도 볼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는 문학번역의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영어번역이나 번역서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은 대체로 원본과의 헤게모니 관계성에 따라서 작동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번역서가 학술적 관심을 끌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원본보다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는 번역서는 원본의 위상에 대한 견제와 제어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패턴에서 우리는 번역서의 헤게모니가 만들어내는 특수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2.2 문학번역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오역 논쟁

그렇다면 원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번역본에 대해서만 학술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나 근거는 무엇일까? *Please Look After Mom*이나 *The Vegetarian*의 경우, 번역서 출판 이후에 발표된 많은 국내 학술논문이나 언론기사나 칼럼들의 초점이 오역 논쟁에 맞추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Please Look After Mom*의 경우에는 원본이 담고 있는 한국적 정서와 한국의 전통적 배경묘사가 상당부분 삭제되거나 축소 또는 일반화되면서 문화적 왜곡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작품의 문학적 우수성이나 가치보다는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성격을 가진 원본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sup>1)</sup> 그리고 *The Vegetarian*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번

1) 신경숙, 공지영이 팔리는 이유는? 문학성이 아니라 ..., 『프레시안』 2011년 9월 23일자.

『엄마를 부탁해』는 순수 아닌 통속소설, 노벨상감은 아니다, 『세계일보』 2012년 10월 17일자.

문단의 띄워주기와 신경숙이란 실체의 괴리가 상습적 표절로 증명, 『경향신문』 2015년 7월 15일자.

외국에서 잘려나간 『흰옷』, 『엄마를 부탁해』, 『조선일보』 2018년 6월 11일자.

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맥락 이해 부족으로 야기된 오역 문제를<sup>2)</sup> 집중 공격하면서, 번역서의 완성도나 가치를 폄하하고 번역가의 자격 논란까지 불리일으키는 비평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객관적 설득력이나 비평 논지의 타당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개인적인 폄하까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이인규 2017: 174-6). 그리고 *Please Look After Mom*의 경우에는 원본이 표절시비에도 휘말리면서 2016년과 2018년 각각 검찰과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심각한 폄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sup>3)</sup>

그렇다면 문학번역과 관련된 논쟁과 논란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오역논쟁의 핵심은, 작가의 고유한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성을 통해 특수한 맥락을 전달하고 있는 원본 작가의 의도성이나 미학적 효과가 오역으로 인해 번역본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번역본의 문학적 수준이나 완성도가 원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번역본만을 통해서 원본 작가의 수준이나 고유성을 독자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체계모니 형성과정에서 원본의 우월성과 대체불가능,

- 2) 없는 문장 넣고 원문 빼고 ... 『채식주의자』 번역논란, 『중앙일보』 2017년 1월 10일자.  
 『채식주의자』 번역에는 오역이 너무나 많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3월 16일자.  
 「맨부커상 받은 한강 『채식주의자』 영역본 엉터리, 『문화일보』 2017년 8월 2일자.  
 「홍정선 평론가, 『채식주의자』 번역은 지나치게 원작 훼손, 『뉴스1』 2017년 12월 11일자.  
 「『채식주의자』 치욕적 오역 논란 ... 한강 작품 아닌 Rewriting?, 『독서신문』 2018년 1월 28일자.
- 3) 『엄마를 부탁해』 작가 신경숙 표절 논란 ... ‘한국문학의 국제적 망신’, 『매일경제』 2015년 6월 17일자.  
 「신경숙 표절 논란, 2백만 부 팔린 『엄마를 부탁해』 인세 얼마가 봤더니 ...», 『세계일보』 2015년 6월 18일자.  
 「신경숙 작가 또 표절 논란 ... ‘진실을 부탁해」, 『KBS뉴스』 2015년 6월 19일자.  
 「신경숙, 美 서평가 『엄마를 부탁해』 혹평 ... ‘김치 냄새 나는 싸구려 신파...」, 『세계일보』 2015년 6월 24일자.

그리고 고유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동시에, 번역본의 불완전성과 모사성의 한계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둘째, 원본 작가의 위상이나 원본의 의의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의 논란은, 특히 번역본이 해외에서 상당한 대중성과 인지도를 확보하는 경우에 종종 볼 수 있는 비판으로, 도착어권 독자들이 번역을 통해 읽어낼 수 없거나 놓칠 수밖에 없는 원본의 한계나 부족한 문학성을 강조함으로써 번역본이 근거하고 있는 원본의 가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록 자연스럽게 뛰어난 번역을 통해 해외 출판시장에서 상당한 위상과 대중성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작품이 해외에서 거둔 성과가 국내의 한국문학의 위계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원본의 기존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즉, 국내 한국문학의 위계관계 속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작가나 작품의 기존의 위상이나 위계질서가 작품의 번역과 해외 출판시장에서의 성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가능성에 대한 견제나 제어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인 주체는, 영어번역본에만 의존해야 하는 영어권 독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는 국내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암묵적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번역가 김지영과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에 대한 오역 논란은 1차적으로는 텍스트성의 차원에서 번역텍스트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문제의식이 한국문학의 모든 영어번역텍스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2차적으로는 번역텍스트가 해외에서 원본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과 영향력의 주체가 되고, 더 높은 위상과 권위를 획득하는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계심은 한국문학의 모든 영어번역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될 필요가 없고, 기존의 한국문학 시스템 내의 역학관계나 체계모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번역서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작가의 작품들의 영어번역 중에서 유사한 논란을 유발했던 경우를 살펴보면 안정효나 이창래, 신경숙, 한강과 같은 낯익은 작가들의 이름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이들 작가들의 공통점은 첫째, 자신들이 작가로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 문단에서 여전히 신진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였거나, 한국문학의 주류를 대표하는 작가군은 아니라는 점과, 둘째, 이들 대부분은 영향력 있는 해외 문학상 수상이나 해외 출판시장에서 뜨거운 관심과 수용을 통해 한국과 한국어라는 물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작가 반열로 올라선 된 작가들이라는 점이며, 셋째, 이들 작가들의 작품번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술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번역의 오역이나 번역 논란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비교 관점으로는, 오히려 고은이나 김훈, 황석영처럼 명실상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의 영어번역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문학번역이 가지고 있는 ‘전복적’(subversive)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복성은 ‘번역텍스트’가 원본보다 더 큰 영향력과 위상을 획득함으로써 기존 자국문학 시스템의 헤게모니나 위계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헤랄도 드 캄포스(Haraldo de Campos)나 해리쉬 트리베디(Harish Trivedi), 셰리 시몬(Sherry Simon) 등과 같은 탈식민주의 번역학자들은 문학번역에 대한 모든 연구는 필연적으로 번역텍스트를 둘러싼 더 큰 문화적 맥락 안에서 만들어지는 권력과 헤게모니 관계를 파헤치는 시도라고 정의한다(Bassnett 1996: 21).

번역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는 원본의 헤게모니나 원본 문학세계의 기존 위계질서가 제어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성이 번역텍스트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번역텍스트에 내재된 ‘예측불가능성’과 ‘전복성’은 원본 헤게모니나 원본 문학세계의 위계질서에 끊임없이 불안감을 야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원본이나 원본 작가가 이루어내지 못한 영향력이나 위상을 번역텍스트와 번역가가 원본 언어권을 넘어서 더 많은 세계독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애초에 원본의 위상을 만들어낸 자국 문학세계나 원본의 작가는 번역본이 야기하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첫째, 작가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인 원본텍스트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낯선 언어로 재탄생되는 과정에서 낯설음과 예측불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 번역서의 표지에 있는 외국어로 표기된 작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낯선 언어로 다시 태어난 번역텍스트는 작가에게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 이는 번역텍스트에 대한 작가의 거리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심지어는 불안감

을 유발시킬 수 있다.

둘째, 원본텍스트가 속해있는 자국 언어문화권의 문학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기존의 자국문학 위계질서 안에서 하단부에 놓여있는 원본텍스트의 위상이, 번역을 통해 해외에서 상당한 주목과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자국문학을 대표하는 수준의 작가나 작품으로까지 상징적으로 급부상하는 과정은 원본이 속한 자국 문학세계의 기존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저항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특히 번역을 통해 해외에서 큰 관심과 인정을 받는 작가들 대부분이 자국의 신진작가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계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위기감은 결국 주목받는 번역텍스트에 대한 경계심과 견제로 이어지는 패턴이 형성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기존의 위계질서의 상단부에 위치한 고은이나 황석영 작품의 번역은 경계심이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학술적인 연구대상으로도 큰 주목을 받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번역서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원본이 속한 문학세계의 기존 위계질서에 도움이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대응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 3. 다중체계(Polysystem)이론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 3.1 다중체계이론과 원본텍스트의 헤게모니

문학텍스트의 영어번역서가 해외에서 획득하는 관심과 인정에 대한 견제나 제어 기제는 우연이나 자연발생적이거나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만 국한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문화적 헤게모니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논란과 논쟁의 메커니즘은 에벤-조하르(Itamar Even-Zohar)의 ‘다중체계’(Polysystem)이론을 통해 그 역학관계의 배경과 맥락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에벤-조하르는 ‘다중체계’이론에서 하나의 문학작품을 별개의 작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텍스트가 속해있는 다양한 환경과 여러 겹의 문화층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화 역학관계의 산물로 정의한다(전현주

2004: 169). 이 같은 관점에서 에벤-조하르는 한 나라의 문학세계를 일종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층위를 크게 ‘중심부’(center/primary)와 ‘주변부’(periphery/secondary)로 나눈 다음, ‘중심부’와 ‘주변부’를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이 두 층위 사이에 끊임 없이 작동하는 헤게모니 논리를 문학번역의 내부적 매커니즘의 동력으로 제시한다. 헤게모니가 힘의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는 헤게모니가 물리적 또는 강제적 힘을 의미하는 단순 지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적 헤게모니 개념을 처음 주창한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사회집단의 우위성은 두 가지 방식, 즉, 지배와 지적, 도덕적 지도력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같은 지도력과 지배가 결합된 통치체계 혹은 지배상황을 만들어내는 점을 강조하면서 헤게모니가 획득하는 매우 폭넓은 차원에서의 지적, 도덕적,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정을 부각시킨다(김성국 1991: 217). 이처럼 문학텍스트나 번역텍스트가 획득하는 헤게모니 역시 지배와 기득권의 개념과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에벤-조하르의 ‘다중체계’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중에 하나로, 특정문학이 주변부 또는 중심 부 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열등한 혹은 우세한 층위에 있다는 주장의 기준이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은(마승혜 2017: 45) 충분히 타당한 문제제기이다. 하지만, 문학이나 문학세계라는 개념 자체의 태생적인 추상성과 모호성을 감안한다면, 비록 논의의 기준이나 범주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문학이라는 구조를 하나의 단일하고 동질의 개체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다양한 층위로 나뉜 사회문화적 복합 구조로 이해하고, 그 층위 사이의 끊임없는 헤게모니 위계관계의 산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이며 유의미한 비평관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작가의 고유한 정신세계와 개인적 담론 방식을 통해 구현한 미학적 가치의 결과물인 문학텍스트를 작가와 문학이 속한 사회구조 속에 위치시키면서, 굳이 작품의 사상이나 사회적 역할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나 앙가주망 문학이 아니더라도,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사회문화적 위계관계의 산물로 보는 시각은 문학텍스트를 개인적이고 독백적인 성격으로만 국한하려는 전통적인 문학비평 접근법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번역행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문학의 특성과

는 달리 태생적으로 의도적이고 선택적이고 사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헤게모니 역학관계로부터 자유롭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문학텍스트와 번역을 둘러싼 이 같은 역학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20세기 이후의 다양한 현대 번역이론 논쟁에서 출발한 산물이 아니라, 번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기원전 3세기 히브리어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초대받은 72명의 히브리어 번역가가 각각 독립된 개별 공간에 한 명씩 따로따로 들어가 히브리어 구약텍스트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결과물인 ‘70인역’(The Septuagint) 성경 번역텍스트의 72종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동일했다는 성경번역의 전통은 원본과 번역텍스트의 역학관계에 대한 상징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즉, 원본에 대한 완벽한 번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를 상정하는 동시에, ‘70인역’ 성경의 번역은 오히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Weissbort 2006: 8)는 논리의 근거를 만듦으로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 어떤 번역도 원본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으며, 일치해서도 안 된다는 역설적인 한계를 던져놓는다. 원본의 창조과정을 절대자인 신의 영역으로 상정하고 번역본을 인간의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시작된 성경번역의 전통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분명한 위계관계를 전제로 한다. 또한 그리스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을 읽고 번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권력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위에서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 헤게모니를 만들만큼 성경번역의 권력적 속성은 절대적이고 위계적이었다.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학번역의 연구영역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번역 연구는 원본과의 불일치성이나, 오역 분석을 통해 번역의 한계를 증명해 보이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다시 말해, 번역의 영역으로만 들어오면, 아무리 불완전한 원본이라 하더라도 원본은 하나의 개별텍스트가 아니라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성이나 완벽함과 동일시되어 버리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그 어떤 텍스트이든 원본이 되는 순간 번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벽한 텍스트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우월한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원본에 가까워지려는 번역가의 노력은 오히려 바벨탑을 통해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오만(hubris)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번역은 원본에 가까워지려는 영

원한 도전이면서도 원본과는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고, 원본을 뛰어넘어서도 안 되는 한계에 놓이고 전체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헤게모니는 번역의 태생적인 본질이면서 숙명이기도 한다.

### 3.2 한국문학의 영어번역과 다중체계이론

다중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문학 역시 복잡한 층위로 구성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크게 분류해보면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으로의 이분법적 분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좀 더 구체적인 층위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소설, 시, 희곡 등과 같은 문학 장르간의 위계관계도 다중체계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문학 내에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한국문학과 재외교포문학 사이의 위계관계도 흥미로운 다중체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특히, 1,2세대 교포문학 뿐만 아니라 영어로 집필하는 *Dictee*(『딕테』)의 테레사 학경 차(Theresa Hak Kyung Cha)나 *Native Speaker*(『네이티브 스피커』)의 창래 리(Chang-rae Lee)의 경우도 한국어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한국문화의 모태적 근거들을 훌륭하게 작품으로 승화시켜 보임으로써 한국문화의 기반을 서구사회에 널리 전파했다”(홍경표 2000: 424)고 보는 관점이나, “미국 한인문학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의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본국 문단과 가장 빈번하고 수월한 교류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한국문학의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지는 국면”(김중희 2014: 118)을 강조하는 관점은 미국 한인문학 역시 한민족 문학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면서 한국 문학사의 통시적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본국 문학과 관계성에 있어 위계관계가 형성되고 ‘중심부’인 한국문학과 ‘주변부’ 문학인 미국 한인문학이라는 층위로 나뉘질 수 있다.

에벤 조하르가 언급한 다중체계 내에서의 ‘내적 관계’(intra-relations)와 ‘상호적 관계’(inter-relations) 역시 ‘다중체계’의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를 부정하며 다중체계내의 훨씬 다양한 층위(stratified)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Even-Zohar 1990: 22-23). 이런 방식으로 한국문학과 관련된 다중체계를 좀 더 세분화하자면 ‘한국문학’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즉 ‘원본’과 ‘번역텍스트’도 엄연한 위계관계의 층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문학 또는 ‘원본’을 ‘중심

부’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또는 ‘번역텍스트’를 ‘주변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갈등과 대립은 결국 한국문학의 정체성이나 위상을 ‘한국문학’이 주도하는지, 아니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문학’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의 관계를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성으로 분석해 본다면, ‘한국문학’은 한국의 문학 체계 내에서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한국문학의 역사와 전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한국문학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본질은 아니며, 한국문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일종의 ‘종속적’(subordinate) 관계성에 불과하면서도, 한국문학과 관계성에 기반하면서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이중적 ‘주변부’라고 볼 수 있다.

‘다중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부’와 ‘주변부’는 하나의 체계 안에 공존하는 동시에, ‘주변부’는 ‘중심부’의 기득권의 기반을 깨뜨리고 전복시키는 시도를 통해 ‘중심부’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중심부’는 ‘주변부’의 도전에 맞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보수적인 반동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그런 전체로 보면, 주변부에 위치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해외 출판시장에서의 수용과 인정을 통해,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문학의 위상이나 위계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해외 출판시장과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원본보다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오히려 인지도나 번역가의 위상의 측면에서 더 큰 영향력을 획득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궁극적으로 각각 ‘중심부’의 방어와 전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심부’ 문학은 현재의 위상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변부’ 문학은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번역을 통해 해외에서 구축하는 새로운 인지도와 가치, 위상을 통해 기존의 한국문학 ‘중심부’의 위계관계를 흔들고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고,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의 ‘한국문학’은 이 같은 ‘주변부’의 도전과 전복 시도에 맞서서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번역본의 문학성이나 완성도, 오역에 대한 비판이 함께 뒤따르게 된다.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 (2011)이나 한강의 *The Vegetarian* (2015) 역시 영어번역서가 출판되고 해외 출판시장에서도 30여 개국 이상 번역판권 계약을 할 만큼 큰 관심과 호평을 받는 과정에서 두 번역서의 원본인 『엄마를 부탁해』(2008)와 『채식주의자』(2007)가 한국어 원본이 출판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국내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재진입할 만큼 국내 출판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sup>

즉, 다중체계이론의 ‘주변부’에 속한 번역텍스트가 해외 출판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예측불가능성은 단순히 해외 출판시장에서의 판매부수나 해외의 우수 문학상 수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자국 내 출판시장이나 자국 내 문학적 위상과 기존의 문화 헤게모니를 흔들어 놓는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그 만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전환되는 기술적인 변환과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영어권 출판시장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측면과, 이 보다 더 중요하게,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부메랑처럼 한국 출판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문학의 위계질서에 전복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 성공하는 번역텍스트에 대한 견제나 제어는 다중체계의 성격의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이나 한강의 *The Vegetarian*의 충실성과 오역 논란을 다룬 수십 편의 학술논문이나 언론의 칼럼들은 결과적으로는 ‘주변부’인 번역텍스트가 획득하는 사회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중심부’ 한국문학의 견제와 제어 기제의 작동 매커니즘의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문학작품과 번역텍스트의 관계성을 사회, 문화, 역사적 구조의 일부로 보면서 그 사회에 통용되는 문화·문학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박옥수 2008: 486) 다중체계 연구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4. 나가는 말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대한 학술연구 분석 작품의 선별적 선택의 맥락을 분석해보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과 관련된 번역 논란과 논쟁의 핵심은 영어번역의 완성도 자체보다도,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해외 문학계에서 획득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높아지는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의 위상에 대한 견제와 방어 기제의 일부분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번역가 김지영이나 한강의 *The Vegetarian*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을 통해 해외 우수 출판사에서 출판된 소설가 김영하와 조정란, 황선미, 이정명, 배수아의 소설의 영어번역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는 거의 전무한 반면에, 신경숙과 한강 소설의 영어번역 관련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각각 20여 편 가까운 국내 연구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작품이 차지하는 국내에서의 기존의 제한된 위상을 뛰어넘어 영어번역을 통해 해외 우수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해외 출판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해외 문학계로부터도 우수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는 작가들의 작품의 영어번역에 대해서만 국내 학계의 학문적 관심과 번역분석이 집중되고, 대부분의 논의와 분석이 오역 논의와 번역가의 자격논란으로 귀결되는 패턴의 반복은 이들 작품의 영어번역이 획득하는 헤게모니와 영향력에 대한 한국문학 체계 내의 내재된 견제와 제어의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을 포함한 모든 글쓰기가 의도적 행위라면, 원본이 존재하는 문학번역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의도적이며 목적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학번역은 1차적인 글쓰기인 원본과의 상대적 관계성의 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주관적이고 파생적이며 종속적인 한계에 놓이게 된다. 문학번역의 헤게모니 취약성은 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본의 헤게모니에 도전이나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는 숙명적인 한계에 직면한다. 원본의 헤게모니에 도전이나 위협이 되는 번역텍스트는, 원본의 절대적 완벽성이라는 명분아래 부실한 번역이나 오역, 번역가의 자격논란 등과 같은 문제제기 속에서 가치 폄하의 대상이 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에 대한 오역 논쟁의 출발점 역시 원본에 대한 번역텍스트의 헤게모니 도전으로 ‘번역’되어짐으로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대한 학문적 논쟁의 대부분

4) 「돌아온 『엄마를 부탁해』 ‘국내-외서’ 부문 1위 석권」, 『독서신문』 2011년 4월 8일자.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국내서 후폭풍」, 『조선일보』 2011년 4월 8일자.

「<베스트셀러> 한강 『채식주의자』 7주 연속 1위」, 『연합뉴스』 2016년 7월 8일자.

은 번역텍스트의 완성도와 가치에 대한 견제와 제어의 기제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체계의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사이의 체계모니 갈등은 다중체계 이론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립논리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문학 체계 내에서는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작품들이 오히려 영어번역을 통해 해외에서 관심과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영어번역텍스트에 대한 오역 논쟁과 비판이 패턴으로 굳어지는 것은 이 같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체계모니 논리에서 영어번역텍스트에 대한 견제나 제어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김성국 (1991) 「고전산책: 안토니오 그람시의 체계모니 이론」, 『사회비평』 5: 210-247.
- 김중희 (2014) 「한민족 문학사의 통시적 연구와 기술의 방향성」, 『외국문학연구』 56: 103-122.
- 마승혜 (2017)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에 관한 고찰 및 이론 진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 『번역학연구』 18(1): 41-64.
- 박옥수 (2008) 「현대문학: 개화기 한국 번역 작품의 기술적, 기능적 분석」, 『겨레어문학』 41: 483-513.
-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테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173-205.
- 이형진 (2011)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학비교연구』 37: 303-328.
- 전현주 (2004) 「다중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번역학연구』 14(2): 167-182.
- 정덕준 (2006) 「재외 한인문학과 한국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2: 13-31.
- 홍경표 (2000) 「재외 한국 이민 작가들의 소설 작품 연구-강릉출에서 이창래까지」, 『한국말글학』 17: 397-450.

- Alvarez, Roman, and M. Carmen-Africa Vidal (1996) ‘Translating: A Political Act’, in Roman Alvarez and M. Carmen-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
- Bassnett, Susan (1996) ‘The Meek or the Mighty: Reappraising the Role of the Translator’, in Roman Alvarez and M. Carmen-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0-24.
- Even-Zohar, Itamar (1990) ‘Polysystem’, *Poetics Today* 11(1): 9-26.
- Genzler, Edwin (2001)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Weissbort, Daniel, and Astradur Eyesteinsson (2006) *Translation-Theory and Practic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ng its Arguments and Controversy**

Lee, Hyung-jin  
(Sookmyung Women's Univ.)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and analyze contexts of arguments and controversy around English translations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especially in terms of intentional selection of particular translations for mistranslation criticism by Korean scholars and media.

Two most popular and acclaimed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so far, Shin Kyung-sook's *Please Look After Mom* and Han Kang's *The Vegetarian* have been subject to heavy criticism of mistranslation in the name of the translator's lack of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context or of the translator's choice of domestication strategy, while other substantial English translations of contemporary Korean novels by the same translators, Chi-young Kim and Deborah Smith, have been completely out of public and academic interest, and not a single scholarly article has been written on these translations.

These two English translations have been quite successful in international book markets, and highly acclaimed in literary prizes while its source texts were less influential in Korean literary world when they came out. However, the fact that only these successfully received translations with higher visibility and influence abroad despite its smaller visibility and status in the system of Korean literature, have been selected for heavy mistranslation criticism, implies that mistranslation criticism and controversy in the form of scholarly articles and newspaper columns, appear to intentionally target these popular translations

with the implicit purpose of blocking or minimizing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ese translations in the system of the canonized tradition and hierarchy of Korean literature.

In this sense, Even-Zohar's 'polysystem' could provide insight into the mechanism of the intended selection of these translations for mistranslation criticism as these translations, while gaining higher status and more visibility to be known as the most representative Korean literary works abroad, become subject to tighter checks and scrutiny in the system of Korean literature, making an issue of the translator's lack of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context, as well as the translator's qualification. It becomes an interesting counterevidence showing how the succes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broad could influence and become subversive to the existing canonized hierarchy of Korean literature.

▶ Key Words: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literary translation, mistranslation controversy, polysystem, literary hegemony

▶ 주제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문학번역, 오역논란, 다중체계, 에벤 조하르, 헤게모니

이형진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정)교수

jinlee@sookmyu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24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